

李 대통령 중국 국민 방문 이틀째

한·중·일 정상회담 순환 개최 추진

6개항 공동성명 이동통신 협력·금융시장 개방도

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관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적극 검토 ▲한반도 및 북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성명은 이 대통령이 후 주석에 이어 자칭린(賈慶林) 전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와 연례 면담 뒤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한국이 중국의 각종 무역투자박람회 등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구매사절단과 투자조사단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와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교류 빈번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 국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중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양국 정부는 산·관·학 공조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됨을 평가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추진에 대해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5년 채택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실질적인

경제·통상협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하기로 했으며,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황사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천명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낮 베이징 시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인 주최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FTA 교섭 앞서 농수산 보호방안 검토를”

이혜민 외교통상부 교섭대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8일 “한·중 FTA는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농수산업 보호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중 FTA의 논의방향과 민감분야인 농수산물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에 대해 중국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민감분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황해를 내해로 만들자”

경제인 오찬·이동서비스 개발센터 방문 등 ‘경제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중국 방문 이틀째를 맞아 수평경제인단 조찬, 한·중경제인 오찬 연설,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시찰, 한·중 이동통신서비스 개발센터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외교’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중 주요 기업인 300여명과 가진 오찬 연설회에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실용의 시대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한다”면서 “양국의 경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장점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양국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 황해를 ‘내해(內海)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 서부의 ‘개발 실크로드’ 시대를 함께 열고 중부내륙 발전 전략인 ‘중부굴기(中部掘起)’ 계획에도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의 동부 연안 개발에만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서부 및 내륙개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황해를 내해(內海)화 하는 등 한·중간 역내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도중 “빠른 성장”보다 “좋은 성장”을 뜻하는 중국 경제정책의 상징어

인 ‘우호우쾌(又好又快)’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의 사자성어 ‘고장난뿔(孤掌難鳴)’을 각각 ‘우호우호 우우우우’, ‘우장난뿔’ 등 중국어 현지 발음으로 말해 중국 경제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연설에 앞서 행사를 공동주최한 완지페이(萬季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양국간 무역협력이 오늘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해온 것은 양국 정부와 단체, 경제인들의 심혈이 담겨 있다”면서 “오늘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행 경제인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4강외교 균형잡기

전략대화 중·러로 확대

정부가 그동안 미국, 일본 등과만 해왔던 전략대화를 중국, 러시아와도 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일에 치우쳐 왔다는 평가를 받았던 4강외교를 균형있게 추진 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중 정상은 27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권종락 외교부 1차관도 같은 날 안드레이 테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1차관과 ‘한·러 전략대화’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전략대화는 국가 간 상시 협의체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제도 양자 관계에 있어 외교·안보·군사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지역 현안을 넘어 기후변화와 대 테러 등 세계적 이슈까지도 논의된다.

정부는 한·러 전략대화 출범과 맞물려 현재 ‘포괄적 동반자관계’인 러시아와의 관계

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28일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중국, 러시아로 전략대화를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대화를 통해 미국, 일본에 기울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중·러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속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3강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국 학계 등에서는 ‘중국 소외론’이 불거지는 등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들은 전략대화는 대화의 형식일 뿐 내용에 있어 반드시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의미는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대변인 “한미동맹은 냉전 유물” 브리핑

정상회담 직전야 주중대사 신임장 접수

중 외교결례 의도? 실수?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민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중국의 외교결례 논란이 불거져 외교당국이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 결례로 거론되는 사례는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 외교당국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을 “역사적 산물”로 평가한 대목이며 다른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서야 주중대사의 신임장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편향적이라는 보고 있는 중국 측의 불편한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난 간 역사의 산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정황이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소위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 학계 등에서 ‘중국 소외론’이 흘러 나오는 와중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터져나온 친 대변인의

‘돌발 발언’은 한국의 외교 순위에서 중국이 뒤로 밀린데 대한 불편함이 묻어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러워 나왔다.

우리 외교당국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발언의 진의 파악에 들어갔다. 외교 당국자는 28일 “중국 측에 문의하니 ‘한미동맹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의미는 한미동맹이 역사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뜻으로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중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기와 관련 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신정승 신임 주중대사가 중국에 부임했는데 중국측이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임장 제정을 미루다가 이 대통령이 도착한 날에야 제정해 일부러 우리 외교당국의 예를 태웠다.

신임장 제정 전이라도 정상적인 대사 활동에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있어야 대사로 부임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신임장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해 왔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관정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몽파 강의!

과내영교육학

강좌 개설: 교육학·리대영 / 초등교육·위재현 / 유아교육·임미선 / 전공국어·최병해 / 국어교육론·마운용 / 전공수학·임대성 / 전공생물·김차욱 / 전공영어·전영민 / 전공미술·김성희 / 전공체육·김홍우 / 일반사회·김형수 * 처음 시작에서 합격까지 - 무료상담 (매주 화, 금) 11시, 3시, 7시

어류방학 특강! 현재 상담 접수중

과내영고시학원 대표 전화 529-0090 개강 7월 4일

www.naeyoung.com

차적층은 취득하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다면!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주소창에 www.sein.co.kr 를 쳐주세요.

- 온라인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세인아카데미' / www.sein.co.kr 국가/민간 자격증 -> 가능시, 신입/기시, 기시, 기술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고시 -> 7-9급 공무원, 10급 기능직, 기술직, 소방공무원 IT/직무교육 -> 인터넷/Network, Graphic/Design, Programming, QA/사무
- 경찰채용, 승진 포털 아카데미 '세인폴리스' / www.seinpolice.co.kr 경찰 공무원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 총합반, 단과반, 독강, 배기자반
- 온라인 고용원급 전문 교육 '세인LMS' / www.seinlms.co.kr 자격증 교육 -> 정보통신기사, 워드프로세서, 통영컴퓨터기사 등 각종 직무 교육 -> 마케팅/판매 실무, 고객상담/고객 상담/영업관리, 전기, 전자제어 등 정보기술 교육 -> 오이스팅, 재무회계, 컴퓨터그래픽 등
- 전기·소방 전문 교육 '세인나라' / www.seinnara.co.kr 전기 자격증 -> 소방설비전기기사 / 소방안전관리사(산업/가사, 필기, 실기) 전기 소방 자격증 -> 소방설비전기기사 / 소방안전관리사(산업/가사, 필기, 실기) 경의

대한민국 No.1 온라인 평생교육 세인아cademy

SEINEDU 02)3144-0075~8

사이버 국가자격 평생 교육원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공무원

행정, 교행, 세무, 관세,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훈, 소방, 전산, 복지, 토목, 건축, 보건

※ 보건직 23명, 전산 16명 9월 27일, 경기 56명 8월 2일, 서울 29명 (월 27일) ※

금년 중·하반기 시험

6월 2일 (주·아침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 6개월 (총)회원 80만원
- 1년 (총)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현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 초 주야 합격강좌

5~6월: 기본서이론(기본이론부터 심화학습강좌)
7~8월: 핵심기본이론 및 단월별 문제풀이 강좌
9~10월: 최종정리 및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반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 선배들의 자비들이 추천한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

합격률 1위 전국수석 합격

www.mdgosl.co.kr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개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안빌딩 6층